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또 들켰다
벤츠·스텔란티스, 인증 취소 및 형사고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합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합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사진),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합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벤츠 43억 원, 스텔란티스 12억 원)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히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맥도날드, 바닐라 라떼·딸기 칠러 출시



맥도날드가 '바닐라 라떼'(사진)를 선보이며, 맥카페 라인업을 강화한다. 맥카페 인기 메뉴인 카페라떼와 바닐라가 만나 고소함은 물론, 바닐라 특유의 은은한 달콤함과 부드러운 향까지 풍부하게 음미할 수 있다. 맥카페 최초로 달콤한 풍미를 더한 라떼 메뉴이자 고정 메뉴로 계속 만날 수 있어 '라떼 덕후'들의 열렬한 반응이 예상된다. 새콤달콤한 매력의 '딸기 칠러'도 선보였다. 제철 과일인 딸기 본연의 싱그러움과 향긋함을 그대로 담았다. 과즙과 얼음을 완벽한 비율로 갈아 넣어 풍성하고 청량한 과일 맛을 느낄 수 있다.

비수술치료 지향하는 '미래본병원' 개원
정형외과·신경외과 등 협진 시스템 구축



김형석 대표원장

잠실본브릿지병원원이 10월 18일 미래본병원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목, 허리, 어깨, 무릎 등 다양한 척추관절 질환 치료를 진행한다. 신경외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스포츠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전문 의료진 8인이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원내에 엑스레이, MRI 등 검사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질환이나 증세에 따라 신경성형술, 고주파 수핵 흡입술, 척추내시경치료 등의 치료를 제공한다. 별도의 스포츠 재활센터가 있어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 전문적인 스포츠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비수술치료를 지향하며 수술이 필요할 시 최소침습 시술로 신체적 부담을 덜고 빠른 회복을 유도한다. 척추내시경 치료는 통증 부위에 5mm 정도의 미세한 절개를 하고 척추관 협착증이나 돌출된 디스크의 원인을 내시경으로 찾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절개부위가 작아 근육과 피부손상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감염에 대한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고령의 환자와 당뇨 및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김형석 대표원장은 8000례 이상의 척추내시경시술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김 원장은 "환자분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래본병원은 서울 잠실역 인근에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美 테이퍼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미국 연준이 이달 테이퍼링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석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과 미국 테이퍼링 발표에도 큰 변동성 없이 코스피 2983.22로 장을 마친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주식 전광판.



미국 돈뿌리기 막내렸다...국내 영향은 제한적

美 연준, 20개월 만에 돈줄 죄기 선언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매입 축소
국내 증시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이석원 차관 "가계부채 관리 중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공식화한 가운데, 미국 테이퍼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이퍼링은 양적완화(통화량 공급 확대) 정책의 규모를 점차 줄인다는 뜻으로, 경기 침체에 회복을 위해 썼던 각종 완화 정책을 시장에 큰 부작용이 없도록 서서히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준 테이퍼링 개시, 금리인상선 그어
미국 연준은 4일(한국시간) 이달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재도입한 양적완화 정책 기조의 변화를 20개월 만에 공식화하며 돈줄 죄기를 선언한 것이다. 자산매입 규모를 현재의 매월 1200억 달러에서 매월 150억 달러(국채 100억 달러, 주채권증권(MBS) 50억 달러)씩 축소하되 내년 이후에는 경제전망 변

화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다. 현 속도가 유지되면 자산매입은 2022년 7월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준금리는 현행 0.00~0.25%로 동결하기로 해 금리 인상에는 선을 그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결정이 금리인상을 고려한다는 직접적 신호가 아니다"며 "금리 인상을 위해서는 더 엄격한 조건이 만족돼야 한다"고 했다.

그간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을 우려했는데, 파월의 '비둘기(통화완화 선호)'적인 언급이 시장의 불안을 일부 덜어주면서 이날 미국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 대비 104.95포인트(0.29%) 오른 3만 6157.58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9.92포인트(0.65%) 상승한 4660.57에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61.98포인트(1.04%) 뛴 1만5811.58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내 증시와 외환 시장도 큰 변동성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4일 코스피는 전날 대비 7.51p(0.25%) 상승한 2983.22로, 코스닥은 전날 대비 3.57p

(0.36%) 하락한 1001.43으로 마감했다. 원달러환율도 전날보다 1.0원 오른 1182.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금리 오르면 빚 늘린 가계 부담 가중 우려
미국 테이퍼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등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 있으나, 예고된 결정인 만큼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시각도 전문가들과 비슷하다. 이석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테이퍼링이 국제금융시장에서 큰 무리 없이 소화되며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이제 관심은 국내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개시와 상관없이 기준금리 조기 인상을 선을 긋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도 8월 시작한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일단 내년 초까지 유지하는 등 서

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미국도 금리인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국내 기준금리 인상 압박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한국은행은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 시점도 한발 빠르다. 이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을 경우 내외 금리차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빚을 늘려 온 가계 부담이 커지고,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들었던 청년층도 부담을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

이 차관은 "국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확대되면 부채 상환 부담도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그간 빠르게 증가해 온 가계 부채 관련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 상승과 부채관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현대자동차가 최초 공개한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SEVEN)'의 티저 이미지.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현대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차 맞아?

11월 LA 오토쇼서 최초 공개 예정

글로벌 대형 SUV 시장을 뒤흔을 현대차의 전기 SUV 콘셉트카 '세븐(SEVEN)'의 티저 이미지가 4일 최초 공개됐다.

현대차의 대형 SUV 전기차 디자인과 기술 비전을 담은 콘셉트카인 세븐은 아이오닉의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하는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을 헤드램프에 적용해 대형 SUV다운 존재감을 드러낸다. 차량 내부는 우드 소재와 패브릭 시트 등으로 꾸며 대형 전기 SUV 차량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을 담았다.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세븐의 실내 공간은 아이오닉 5에서 보여준 리빙 스페이스(Living Space, 거주공간)라는 테마를 더욱 확장시켰다. 프리미엄 라운지를 연상시키는 실내

공간 구성을 통해 대형 SUV만이 선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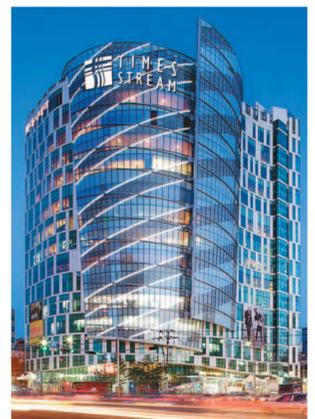
새로운 시트 배치와 여유로운 공간 활용성을 통해 아이오닉5의 실내 디자인보다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났다. 차량 실내에는 아이오닉5에서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해 차별화했다.

아이오닉5의 도어 트림과 도어 스위치, 크래시 패드 등은 유채꽃, 옥수수 등 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 오일 성분이 사용된 페인트를 적용했으며, 시트는 사탕수수,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 성분을 활용해 만든 원사가 포함된 원단으로 제작됐다. 세븐은 11월 개최되는 미국 LA 오토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서울 신림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온다"

신림역 타임스트림 오늘 문열어
MZ세대 타깃...캐주얼 맛집 유치



5일 서울 신림동에 오픈하는 타임스트림. 사진제공 | 타임스퀘어

경량 타임스퀘어가 5일 서울 신림동에 도심형 쇼핑 플랫폼 타임스트림을 오픈한다. 기존 포도물의 건물 위탁 운영을 맡은 것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연면적 약 3만8000㎡ 규모다.

타임스트림은 타임스퀘어의 '타임'과 실시간 영상 송출을 의미하는 '스트림'을 합친 단어로, 슬로건은 '스트림이 펼쳐 라이프'다. 2030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요 타깃으로, 물건을 사고 소유하는 것을 넘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나의 취향대로' 콘텐츠 체험을 추구한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출구와 쇼핑물 출입구가 바로 연결돼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의 수요가 높은 지역 특성을 살려 젊은 세대의 생활밀착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롯데시네마, 영풍문고, 문화센터 등을 재정비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식음료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캐주얼 맛집부터 가족 단위 패밀리 다이닝 브랜드 유치에 공을 들였다.

회사 측은 "타임스트림은 신림을 더

욱 젊게 만드는 영 콘텐츠 쇼핑 플랫폼"이라며 "신림 상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도록 고객 중심의 콘텐츠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